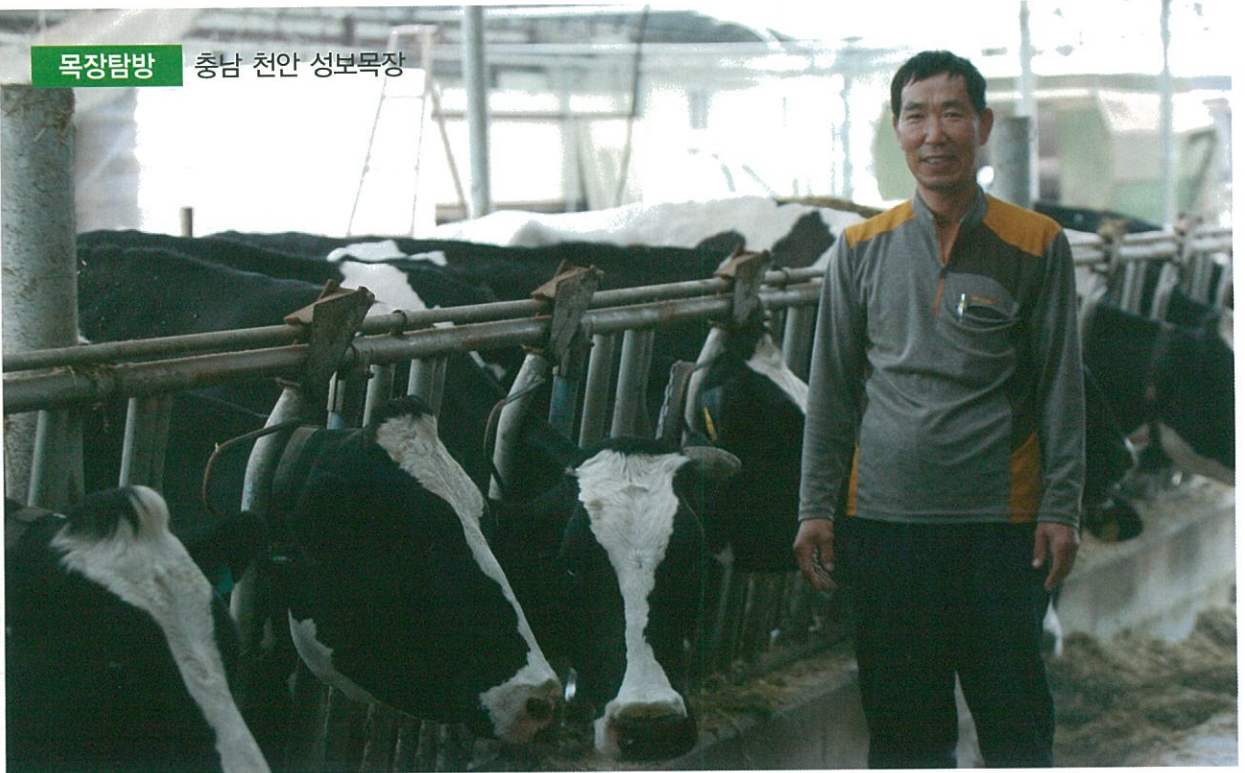




“기본에 충실하면 작은 목장도 수익 창출 기대할 수 있어”

충남 천안 성보목장을 찾아서

올해로 15년째 성보목장(충남 천안시 성남면 봉양리)을 운영하고 있는 방경운·김진옥 부부는 400여 평의 작은 부지에서 매일 56두(착우유 33두와 육성우 23두)의 젖소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 ‘기본에 충실하면 작은 목장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매일 목장관리에 힘쓰고 있는 방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기본에 충실한 목장운영을 하고 있는 방경운 대표

3년간 손수 일궈낸 생활터전

방 대표는 아내와 함께 맨손으로 목장을 짓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경운 대표는 20년 동안 의정부에 거주하며 CNC 선반 회사에 다니다, 정년이 가까워 오면서 귀농을 생각했다. 사업을 해보려 했지만 아내의 반대가 심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축산전공을 살려 고향 땅에서 낙농업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목장을 여는 일은 시작부터 막막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었는데 목장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낮은 땅을 돋우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또 일일이 제 손으로 축사와 시설을 모두 마련해야 했어요. 그때 어머님 집에서 먹고 살다시피 하며 손수 맨손으로 부딪혀 목장을 만들기 시작했죠.”

1998년에 송아지 10마리로 처음 목장을 시작했지만

방 대표는 바로 고향에 내려올 수 없었다. 사료비, 건축자재비 등 재료가 많이 들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그래서 먼저 내려온 아내 김진옥 씨가 송아지 키우라, 세 아이 통학시키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송아지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방 대표의 축사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매주 주말 서울에서 천안을 오가며 한 동, 한 동 손수 목장을 지어나갔다. 다시 돌아켜보면 ‘나와 아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위의 좋지 않은 시선, 실력으로 인정받아

2000년 가을,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목장 일에 전념하자 다음해부터 목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3년간 바깥출입도 없이 밤

낮없이 일하는 방 대표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저놈은 일하다 죽을 놈’이라며 좋지 않은 소리를 했지만, 그가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해 한 해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며 목장을 관리하다가 이만하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천안 축산계와 낙우회 등의 바깥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을 찾아가 경영컨설팅을 받고 사양관리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나갔다. 축산과학원 낙농과에서 공부도 시작했다. 그 인연이 계속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명예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구과제도 심의하고 필요한 지식정보를 빠르게 제공받고 있어 이제는 되레 주변의 목장주가 사



사용자의 편리성을 생각해 넓게 지어진 착유실

양관리나 컨설팅에 대해 묻는다고. 방 대표 뿐 아니라 당시 아내 김진옥 씨도 유가공에 관심을 두고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자 공부를 했었다.

아내에게 닥친 2번의 교통사고 그리고 암 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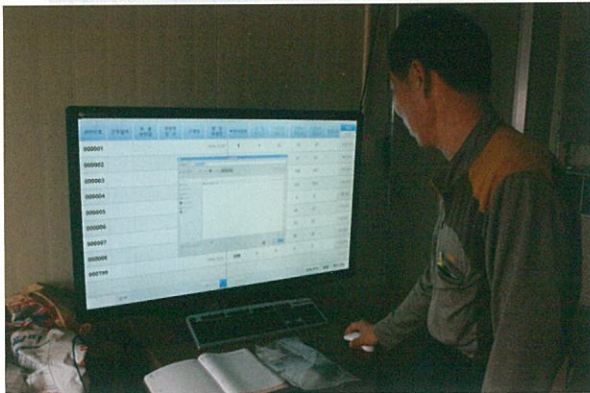
목장을 하면서 가장 아찔하고 막막한 시간이 방 대표에게 찾아왔다. 바로 아내에게 닥친 두 번의 교통사고와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던 순간이다. 2005~2006년 무렵 자녀를 통학시키다가 당한 2번의 교통사고는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심각해 사고 후에도

후유증이 찾아왔고, 병원에 다니던 와중에 암 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이젠 그때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아내와 유가공 사업을 하자고 약속했는데 교통사고에 이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바로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암 투병을 시작했죠. 당사자도 힘들었지만 아이들,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치돼서 천만다행입니다.”

공동 연구결과로 탄생한 전광판식·종합번식관리 시스템

성보목장을 찾아가면 전광판식 번식관리 시스템과 종합 번식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번식관리 시스템은 과거 노트에 기록하고 펼쳐봐야 하는 단점을 보완해 발정탐지, 건유일, 분만일, 발정예정일, 활동량을 전광판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안한 것으로, 젓소의 목에 있는 센서가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장치다. 이는 2010년도 축산과학원 낙농과에서 공부하면서 목장에 필요한 시스템을 연구해보자고 백광수 박사에게 제안해 만들어진 성과물이



성보목장에 설치된 전광판식 번식관리 시스템
종합번식관리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방 대표



운동장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성보목장의 젖소들

다. 종합번식관리시스템은 번식관리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춘수 교수와 함께 목장에서 2년간의 실험을 거쳐 완성했다. 컴퓨터를 통해 모두 기록되고, 발정탐지, 번식관리는 물론 CCTV가 합쳐진 형태로 목장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목장에 권하고 싶다고 방 대표는 말한다.

기본에 충실하고 새는 부분 막으면 수익도 따라와

‘천안축협 우수농가’, ‘2007년 CJ(주) 사료BU 우수목장’에 선정되기도 한 성보목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양한 경험과 연구, 그리고 데이터 기록을 통해 종합적으로 얻어진 기술 축적으로 인공수정에서부터, 자가진단을 통한 질병 치료 등의 사양관리를 직접 해결한다. 그는 목장 수익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새는 부분을 먼저 막으라고 조언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 목장에서 ‘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으면 보이지 않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큰 이익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은 같지만 돈을 번다는 느낌을 목장주가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방경운 대표는 착유와 축사 관리로 늘상 바쁘지만 마을 이장직을 맡아 동네일을 살피기도 하고, 낙농컨설팅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이다. 방 대표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한다. 순수한 목적으로 기본에만 충실하면 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